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許 祐 盛

(慶熙大 哲學科)

어느 날 왕은 궁전에 커다란 코끼리를 묶어 세워두고, 다섯 소경을 불러들여서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한 사람씩 코끼리를 만진 다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대답했다. 코끼리의 코를 만졌던 첫째 소경은 거대한 뱀이라고 대답했다. 꼬리를 만져보았던 둘째는 새끼줄이라고 대답했으며, 셋째는 다리를 만지면서 나무둥치라고 대답했다. 넷째는 귀를 만진 다음 부채라고 대답했으며, 다섯째는 배를 만진 다음 벽이라고 선언했다. 제각기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바람에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모두 자기야말로 옳고 다른 이는 틀렸다고 하더라.

불교나 인도철학에 익숙한 사람은 위와 같은 얘기를 종종 듣는다. 대학에서 교수의 일을 맡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 專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공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코나 꼬리와 같은 부분일 따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전체의 모습,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세계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공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든다. 이것을 전공이 가져다주는 制限性이라고 해보자. 이 제한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하다. 왜냐하면 큰 차원에서 보던 코끼리 전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내 전공이 전체 모습의 몇분의 일에 속하는지 그것의 정확한 위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없으며, 작게는 다른 개개의 전공으로 이해하는 세계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내 전공이 다른 것보다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묻는다면 그 해답도 그리 쉽지 않다.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 속에서 위치선정을 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대답이 가능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의 모습은 언제나 불투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시대와 사회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전공을 통한 각기 상이한, 그것도 극히 제한된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와 교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 된다.

'전체' 모습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고 그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적할 수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투명해지는 것처럼, 우선 인간 역사 '전체'의 구도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학문행위의 위상이 정해져서 이것이 다른 부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불투명한 생각이 투명한 생각으로 전환될 것이 아니겠는가?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나아가고 싶은 轉換의 所望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범지구적인 다국적의 대규모 정보망 속에 잠혀 있는 우리에게, 옛 것과 새 것이 부

단히 세력다툼을 하는 와중에 있는 우리에게 나 개인의 위치를 알려줄 만한 능력이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인문학에는 있겠는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이는 하나의 소의된 도시, 버려진 도시이어서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도 위치도 그 도시 전체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공간이란 말인가? 이렇듯 하나의 전공 속에서는 이미 전체를 기대할 수 없다.

大學—언제나 부분들의 집적인 대학—은 그래서 언제나 不確實性을 안고 있다. 한 분야의 전공자가 타전공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전공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로 나아가면 우리의 태도는 돌변하여서 似而非眞理를 고집하게 된다. 가령 무엇이 대학에서 필수 교양과목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해보자. 어떤 전공자는 자신의 학문이야말로 대학생활과, 나아가서 세상살이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과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어와 영어가 필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는 ‘실재’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면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민족을 서슴없이 떠받들어서 국사교육을 필수로 요구할 수도 있다. 혹은 필수와는 관계없지만 사법·행정 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숫자를 내세워서 학교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전공자가 ‘도구’, ‘민족교육’을 내세워서 교양교육의 필수성을 주장하거나, 세상살이의 힘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가능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슨 목적을 위한 도구인지, 민족의 세계내에서의 위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설득적이거나 자명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전체의 그림이 주어지지 않는 한 언제나 이것들의 필수성에 대한 曖昧性은 남아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필자는 이른바 도구과목도 민족과목도 못 되며, 세상의 세력과도 별로 관련이 없는 과목, 새 것도 아닌 동양철학 그 가운데서도 인도철학과 불교철학의 전공자가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를 전공하겠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아마 '70년대 모교 철학과에서 불교와 인도철학 담당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이나 당시 민족주의의 영향이 한 몫 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양철학이 무엇인가 또는 불교를 해서 뭐하겠는가에 대한 명료한 생각을 갖고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전체의 모습이 주어질 수 없다면 설사 위의 질문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해답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연히 선택된 과목이 나의 전공이라고 해서 그것이 필수과목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진경 오만일 것이다. 그리고 전공의 제한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년 전 교수로 임용될 때 가졌던 흥분과 설레임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 때와 유사하게 가슴에 남아 있는 것들이다.

첫째로 ‘넓은 思想’을 가르치는 데 따른 문제점이다. 이것은 필자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큰 고민을 주는 부분이다. 철학은, 특히 동양철학은 이미 넓은 사상으로 보인다. 그 넓은 징후는 여러 가지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유가나 불가가 아니라 서양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법제도와 과학이나 기술처럼 보인다는 점, 사소한 일 같지만 대학을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공계 계통의 상호비교라는 잣대를 이 사회가 우선적으로 원용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우리나라가 이른바 동양에 속해 왔으면서도 각 대학의 철학과가 대체로 동양철학 전공자보다 서양철학 전공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 대해 이 사회가 심한 불편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어차피 서양의 과학과 기술로 뒤덮여 있는 세계가 바로 오늘이며, 이 오늘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 없는 한 우리는 서양철학이든 동양철학이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 인간해방에 철학이 소용된다면 철학 또는 동양철학은 대체 이 해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언어가 동양철학 어디쯤에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구원의 대상이 오늘이라면 그 길은 오늘의 사상 속에서 찾아야지 어제의 것은 틀렸다는 헤겔식의 사유에 일리가 있다면, 구원은 서양사상에서 찾아질 가능성

이 높다. 그렇다면 애당초 철학에 해방과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한 일이 아닐까? 그 길이 확인되는 순간에 동양철학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는 전직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르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질문과 회의적 태도는 곧 學生에게 관련된 문제로 진전된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만은 학생들에게 말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있는가?”, “철학개론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같은 인문학이라 하더라도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사학의 전공자에게는 이러한 고민은 조금 덜할 것이다. 전자의 둘은 우리글과 도구과목이라는 명분하에, 후자는 극적있는 교육을 위해서 유익하거나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을 선택하는 학생에게도 책임은 있다. 철학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처음부터 잘 모르는 철학에 뜻을 둘 수도 없겠지만) 성적에 몰려서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경희대 철학과의 경우 '92년도에 입학한 40명 가운데 12명이 거의 철학수업을 포기했다. 대부분이 다시 한 번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일 게다. 그들의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철학이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반성적 작업이거나, 또는 상식적 인생을 엄격한 언어로 비판하고 현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고 있어서(불교의 경우),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는 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철학이 인기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철학하는 사람의 고민은 물리학의 전공자가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의 지식을 매우 유용하다고 하며, 그 有用性에서 존재의미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것과 옛 것의 갈등조차도 시대의 중심언어와 관계하고 있는 물리학 분야의 담당자는 느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 것에 대한 열정으로 옛 것에 대해서 관심을 쓸 만한 여유도 없으며, 옛 것에서 나오는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그것이 새 것의 전공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안 물리학과에 대한 평가로 온 학교가 부산을 떠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보기 사나워서 하는 말은 아니다. 한 학교가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같은 몇몇 학과의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매겨진다 하고, 나도 그 집단의 구성원의 하나이니 평가의 결과가 나빠서 좋을 리는 없다.

다음 평가대상으로는 화학이나 의과대학이 선택되리라고 한다. 철학이나 사학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소문은 없다. 그래서 전체의 맥락에서 인문학과 철학의 위상에 대한 질문이나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무거운 질문 대신에 차라리 “철학과는 언제쯤 평가대상이 될까?”라고 묻는 편이 나은지 모르겠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 학과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행세를 하자면 교육부의 평가대상이 되는 길이 첩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출신이 다시 한 번 교육부장관이 되기를 희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철학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 안 된다. 그것은 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을 권력의 시너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세상에, 큰 변고가 생기거나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 오면 혹 철학에 대한 관심고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날이 오면 지금까지 지배적인 언어였던 과학과 기술, 경제 위주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五欲樂의 만족을 위해서 시도되었던 물질문명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는 판단이 설 때, 세상의 변고와 멸망의 이유가 인간이 자랑스러워 했던 과학과 기술에 책임의 상당부분이 있음이 밝혀질 때, 철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아니 그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철학과는 영원히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변고의 결과가 물리학도 철학도 소용없는 세상의 멸망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정치권력이나 세상의 멸망에 의해서도 철학은 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현명하다면 그러나 세상이 망하기 전에도 반성할 수는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불행한 사태에 대한 예기 속에서 철학이 세상의 흐름에 간단히 항복할 수 없는 존재이유를 보는 것이다. 반성의 근거는 인도든 중국전통이든 동양고전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가르침, 즉 인간의 감각적 欲望에 대한 否定과 抑制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놓여 있다. 동양고전은 욕망충족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욕망억제나 부정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독이 들어 있는 꿀과 같은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욕망충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들 감각의 욕망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져서 인간의 생각이 들뛰고 행위도 극성스러워지게 하는 것이어서 마침내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면 과학과 기술을 매개로 한 진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根本的 質問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의 과학과 기술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옛 것들의 도리라고 하는 주장에 찬동할 수 없는 것이다.

동양사상의 욕망에 대한 비판과 현대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과 도전이 수용되기는 극히 어렵다. 그것은 이들 주장이 일상적인 쾌락의 삶의 방식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도전하고 있어서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否定性은 그런데 현대문명에 대해서 동양사상이 가지고 있는 비판력을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그 가르침을 응용할 수 있는 맥락의 발견과 실천을 매우 어렵게 한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회에서 동양의 길은 행위의 실천규범이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쉽게 無力化될 수 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이 자아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문제로 삼고 있는 사회, 또는 이러한 인간관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옹호하는 사회라면, 또는 사회가 맹목적인 합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숙련이나 계산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라면, 이런 사회에서 그것에 반하는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동양고전의 가르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와 격차의 인정은 그러나 우리의 反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일 뿐 동양을 무효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동양의 옛 소리를 낡은 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옛날 사람과 요새 사람의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욕망과 그것의 무분별한 만족이 예나 이제나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앞세운 현대에, 그들의 소리가 나라글과 민족의 소리와 함께 너무 요란스러워 보여서 다 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다.

인문학의 지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우리글과 민족을 중시하는 국어와 국사교육과, 보편을 강조하는 철학교육의 상호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전공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아는가? 이 도시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학과 기술을 앞세운 현대문명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며,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 누구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만심보다는 그 限界性을 감안해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경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